

삼성전자, 이탈리아 TI와 와이브로 제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와이브로(휴대인터넷)가 해외 우수업체의 관심을 모으며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탈리아 최대 통신업체인 텔레콤 이탈리아(TI)와 와이브로 시스템 및 단말기 공급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삼성전자 이기태 사장과 TI의 마씨모 카스텔리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삼성전자는 이로써 일본의 KDDI에 와이브로 시험장비 공급을 하고 미국의 스프린트 넥스텔, 브라질의 아브릴 그룹 등과 공급계약을 맺는 등 세계 5개 통신업체와 와이브로 분야 제휴를 맺는 성과를 거뒀다.

삼성전자는 제휴에 따라 TI에 PDA 형태의 와이브로 단말기 50여대와 노트북에 장착하는 PCMCIA 카드 30여매를 제공해 와이브로 시범서비스에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양 사는 특히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와이브로 시연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 행사에서 와이브로 서비스 시연이 이뤄질 경우 와이브로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명실상부한 세계의 통신기술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 보인다.

LG전자, 2006년 월 55만장 PDP생산 체제 구축

LG전자가 내년 하반기 A3라인 2단계 투자를 진행해 월 55만장의 생산체제를 구축한다.

또 올해 4분기 PDP세계시장 첫 분기 1위 등극에 이어 2006년 이후 PDP모듈 세계 1위 달성을 선언했다.

LG전자는 11월 19일 구미 A3 PDP공장에서 PDP 추가 투자 및 세계 1위 추진 전략

등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다.

LG전자는 A3라인 1단계 라인(6면취 기준 12만장)의 성공적인 안정화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 2단계 투자를 준비하는 등 PDP 모듈사업의 시장주도권을 강화해 2006년 이후 PDP모듈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LG전자는 세계시장 2위인 PDP TV(1위 Panasonic) 분야에서도 2007년 1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 10월 업계 최대 생산량인 약 25만장의 PDP모듈을 생산한 데 이어, 11월~12월 A3라인 1단계 라인의 수율이 지속 상승해 12월 중 황금수율에 도달하는 만큼 PDP모듈 사업개시 첫 분기 1위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A3라인은 세 개의 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복합 라인(1 Base 3 Lines)으로서 2, 3단



삼성전자 주요 뉴스 (www.sec.co.kr)

No.	제목	일자
1	삼성전자, LCD TV 대중화 나선다	2005.12.02
2	삼성전자, 모바일기기용 화질개선기술 개발	2005.12.02
3	삼성전자, 동남아에 디지털 희망 전한다	2005.12.01
4	삼성전자, 시각장애인 컴퓨터 경진대회 개최	2005.11.30
5	삼성전자, 세계 DMB시장 본격창출 나선다	2005.11.30
6	삼성전자, 北美서 MS와 공동마케팅 확대	2005.11.29
7	삼성전자, 호주의 인기 스포츠 하키 후원	2005.11.28
8	삼성 휴대폰, 서유럽에서 TWO(2배성장) TWO	2005.11.27
9	삼성전자, 사랑의 연탄으로 마음까지 따뜻하게	2005.11.25
10	삼성 애니콜, '동작인식 웰빙폰' 출시	2005.11.25
11	삼성전자, 독일 최고 브랜드로 선정	2005.11.24
12	삼성 LCD, 72라인 모듈등 상량식	2005.11.23

LG전자 주요 뉴스 (www.lge.co.kr)

No.	제목	일자
1	LG전자, 우수리 기금으로 근육병 어린이 재활 지원	2005.11.30
2	LG전자 PDP TV, 세계 최대 명품관에 설치	2005.11.29
3	LG전자, 4년 연속 카자흐스탄 시장 석권	2005.11.29
4	세계 최초 지상파DMB PDA 출시	2005.11.28
5	LG전자, 고3 수험생 위한 음악회 개최	2005.11.26
6	LG전자, 체코 대통령궁서 자선 마케팅	2005.11.24
7	LG전자 휴대폰, 미국 서유럽서 소비자 만족도 조사 1위	2005.11.23
8	LG전자, 싸이언 '블랙라벨 시리즈'로 소비자 공략	2005.11.23
9	LG전자, 노동조합도 사회공헌활동에 앞장	2005.11.22
10	LG전자, 세계 최초 벽걸이 프로젝터 출시	2005.11.22
11	LG전자, 2006년 월 55만장 PDP생산체제 구축	2005.11.21
12	LG전자, 체코공항에 대형 LCD 모니터 설치	2005.11.19

계 순차 투자를 진행할 경우, 추가적인 부지 확보 및 공장 건설이 필요없어 향후 2년간 업계 최대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차세대 홀로그램 저장장치 국내 최초 개발



3차원 입체 정보 저장방식으로 용량과 속도의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홀로그램 저장장치가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차세대 대용량 저장장치인 'HDDS (Holographic Digital Data Storage)'를 통해 동영상을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1월 15일 밝혔다.

HDDS란 기존 평면 디스크에 2차원 방식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2개의 레이저 간섭무늬를 통해 3차원의 입체 방식으로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고용량과 빠른 속도를 구현하는 홀로그램 방식의 저장장치다. HDDS의 세계시장 규모는 오는 2010년까지 약 1,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이번에 개발한 HDDS는 200기가바이트(GB)의 홀로그래픽 디스크에 초당 200메가비트(Mb)의 전송속도로 동영상을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다. 이는 DVD와 같은 크기의 디스크 1장에 20시간 분량의 HD방송을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용량이 DVD의 50배 이상, 차세대 DVD의 8~10배에 달하며, 데이터 전

송속도도 DVD보다 10배나 빠르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이와 함께 홀로그래픽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의 실시간 신호처리를 위해 자체기술로 채널 디코더를 개발, 이를 실시간 동영상으로 재생기술을 미국 인페이스(InPhase)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했다.

KEC, 2005년 뉴미디어대상(기업부문 대기업) 수상

국내 최대 개별 반도체 전문회사 KEC는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2005 뉴미디어 대상 시상식에서 '기업대상 대기업부문 대상' 수상과 함께 '정보통신부 장관기'를 수여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뉴미디어대상은 신산업경영원(원장 성의경)이 주관하고 있으며, 한해 동안 국가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공헌한 기업과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KEC는 금번 수상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과 마케팅 활동을 통해 국가 전자산업 발전과 수출에 크게 기여한 기업으로서 대외적으로 그 능력을 다시 한 번 인정 받는 계기가 되었다.

KEC는 1969년 경상북도 구미에 국내 자본이 참여한 최초의 반도체 회사로 창업된 후 지난 36년 동안 전자산업 분야에만 전



념해 온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회사이다. KEC는 기술중시의 경영원칙을 고수하고, 수출 중심기업으로 글로벌(Global)경영을 통해 성장해 왔으며, 특히, 국내 반도체 재료 및 장비산업의 국산화에 기여한 혁혁한 공로를 인정 받아 금번 뉴미디어대상을 받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

삼성전기, 톡톡 튀는 이색 창립기념행사로 눈길



삼성전기는 11월 1일 창립 32주년을 맞아 11월 31일 회사 내 실내체육관에서 이색 창립기념행사를 가졌다.

삼성전기는 비전 선포 1주년이기도 한 이날 창립기념식을 기존의 시상식 위주의 전형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행사로 활기차고 열정적인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삼성전기는 창립기념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관계사, 협력업체 등이 보내는 화환 대신 1사1촌 토고미 마을의 쌀로 기증 받아 지역사회 내 형편이 어려운 가정과 사회복지시설로 보낼 계획이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삼성전기는 전 직원들에게 비타민을 나눠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흑자전환을 이룬 노고를 격려했다. 비타민은 강호문 사장이 각 사업부장에게, 이어 팀장, 그룹장, 전사원에게 릴레이식으로 전달됐다.

이색 산행 하나되기 행사 “꽂!(비우자) 통!(통하자) 成!(이루자)”

삼성전기는 11월 1일 창립기념일에 강호문 사장을 비롯한 임원, 한울림 협의회 위원, 조직장 등 1백 여명이 회사 인근 석성산을 등반했다. “꽂!(비우자) 통!(통하자) 成!(이루자)”의 부제로 진행된 이날 산행에서 삼성 전기 조직장들은 함성을 지르며 가슴 속 쌓인 스트레스를 비우고(꽂), 가족, 동료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소통(通)의 시간을 가진 후, 저마다의 목표를 쓴 기왓장을 격파하며 목표달성(成)을 기원했다.

오토닉스,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

산업자동화 전문 기업 오토닉스는 인도차이나 지역에 대한 마케팅 강화를 위해 최근 베트남의 경제 수도라 할 수 있는 호치민시



(구, 사이공시)에 베트남 현지 법인(사진)을 설립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동 현지 법인의 이승문 소장은,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경제 성장이 빠른 지역의 하나로서,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어 자동화 아이템의 수요가 성장할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오토닉스 베트남 법인은 기존의 현지 대리점의 베트남 국내 영업 및 서비스 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적극적인 현지 전시회 참가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 최근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ASEAN 시

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라고 청사진을 밝혔다.

또한, 오토닉스는 금년 3월 국내 계측기 분야의 전문 기업 (주)코닉스를 인수함으로써 유사 업종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국내 자동화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해외 유명 메이커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토종 종합자동화기 메이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보, 20인치 프리미엄 일체형PC 첫 출시

삼보컴퓨터는 11월 9일 20.1인치 와이드 스크린을 탑재한 프리미엄 일체형 PC ‘루온 올 인 원 LXMA’를 이달 중순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면 측면에서 20인치 와이드 제품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LXMA’는 대형 스크린과 중저음 우퍼스피커를 탑재해 실감나는 영상과 음향을 제공, PC 하나로 ‘나만의 영화관’을 만들 수 있다. 또 넓은 작업 창을 지원해 여러 작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며 모니터와 본체를 일체형으로 구성하는 등 공간 절약형 설계로 디자인했다.

130만 화소 고화질 웹 카메라를 장착해 영상회의·채팅·사진 촬영 등이 가능하며 USB 2.0, IEEE 1394, 7 in 1 멀티 카드 리더 등 다양한 입출력 포트로 디지털 카메라·캠코더·MP3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쉽게 쓸 수 있다.

팬택, 외국인 학생에 장학금 지급



팬택계열은 11월 16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한국학중앙연구원 본사에서 해외 한국학 진흥을 선도하고 한국 문화를 전파할 ‘해외 차세대 지도자’로 선정된 10명의 외국인 장학생에게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팬택 한국학 장학금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학중앙연구원 윤덕홍 원장은 역사, 어문·예술, 문화·종교, 정치·경제, 사회·교육, 해외한국학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해외 차세대 지도자’로 선발된 중국, 베트남, 벨기에, 불가리아 출신 한국학 대학원 외국인 장학생 10명에게 ‘팬택 한국학 장학금’ 3,000만원을 수여했다.

팬택계열은 지난 8월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 협약식’을 갖고 3년간 연간 2억원 규모로 ‘팬택 한국학 장학금’, ‘해외 교육계 인사 한국 문화강좌’, ‘해외 유력인사 초청 연수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한국 바로 알리기 3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한국학을 연구하는 외국인 장학생에게 3년간 매학기 ‘팬택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SDI, 세계최초 4세대 OLED 양산 체제 돌입

삼성SDI의 4세대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대한 양산투자결정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져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건설되는 능동형 OLED 라인은 현재 PDP와 2차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천안 사업장에 약 1만 3,800평 규모로 건설되며 2007년 1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된다.

능동형 OLED 양산라인의 연 최대 생산능력은 2,000만대(휴대폰용 기준)이며 양산 제품에는 패널 내부에 각종 회로를 삽입할 수 있는 SOP(System on Panel) 기술을 적용해 원가 경쟁력을 높힐 계획이다.

우선 휴대폰용 중·소형 OLED를 출시하고 단계별 추가 투자로 PMP (Portable Media Player), 게임기 등 정보 단말기 제품으로 시장을 확대, 2008년 부터는 연 5,000만개 이상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일본의 경쟁사들은 TFTLCD·OLED 겸용 라인에서 능동형 OLED를 소량 생산해 왔으나 저온 폴리실리콘(LTPS, LowTemperature Poly Silicon)을 사용한 4세대 능동형 OLED 전용 양산라인의 투자는 삼성SDI가 세계 처음이다.

현대이미지퀘스트, 490억원 TV 수출 계약

현대이미지퀘스트는 이탈리아 H I I 와 4,030만유로(한화 약 490억원) 규모의 디지털TV 수출 계약을 했다고 11월 15일 밝혔다.

현대이미지퀘스트는 이번 계약으로 LCD TV 5만대, PDP TV 1만대, TV 튜너가 포



함된 LCD 모니터 3만대 등 총 9만대를 HII에 수출하게 된다.

또 현대이미지퀘스트는 디스플레이 제조기술을 HII에 전수하고, 반제품을 현지에서 조립·생산해 '현대(HYUNDAI)' 브랜드로 이탈리아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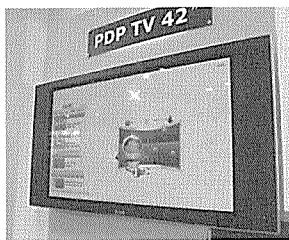
안병선 대표는 "OEM 방식의 수출이 아닌 자사 브랜드로 수출된다는 점에서 이탈리아 지역 내 브랜드 인지도 확대는 물론 지속적인 계약 갱신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이탈리아를 거점으로 유럽 남부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브라질, 인도 등 신흥 성장시장에서의 영업망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HII는 1984년 설립돼 PC, 노트북, 모니터, TV 제품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4개의 TV/모니터 생산라인과 2개의 PC/노트북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다.

이레전자 PDP TV 이스라엘 수출

디지털 디스플레이 전문기업 이레전자산업(대표 정문식)은 이스라엘 최대 은행인 하포엘림은행(Bank hapoalim)에 42인치 PDP TV를 공급한다고 11월 16일 밝혔다.

이레전자측은 "이번 이스라엘 최대은행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스라엘 현지 전략적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 이룬 결과"라며 "42인치 PDP TV 12월 1차 선적분 500대를 포함해 전체 공급수량은 1,500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레전자는 이스라엘 시장이 새로운 전략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판단해 2년 전부터 이스라엘 시장을 공략해왔으며 이 시장에서 40인치 HD급 LCD TV, 50인치 HD급 PDP TV, 42인치 HD급 PDP TV 등 하이엔드 제품을 중심으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레전자는 앞으로 영국 대형 유통점 디슨(DIXON)과 홈쇼핑 업체 QVC에 자사브랜드로 제품 수출을 성사시켜 유럽 시장 전역으로 자사 브랜드 제품 공급을 넓혀감과 동시에 이스라엘과 같은 전략 지역에서 지역적인 영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LS전선, 친환경제품으로 경쟁력 높인다

LS전선이 11월 12일까지 고양시 국제전시장(KINTEX)에서 개최되는 '제1회 친환경전시장'에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LS전선은 납성분을 완전히 제거한 무연케이블을 비롯해 신냉매를 채택한 터보냉동기 등을 전시했다. 무연케이블은 지난 9월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전선 내열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던 납 성분을 컴파운드 제조공정에서 완전히 제거,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다.

또, LS전선의 터보냉동기는 프레온 가스 대신 오존층 파괴가 되지 않는 'R134a' 신냉매를 채택, 기존 제품보다 30% 이상 에너지 절감효과를 높인 친환경·고효율 기기로 주로 대형 빌딩이나 공장, 원자력발전소 등에 사용된다.

